

## 왕국의 총들

마태복음 22:1-33

본문의 1절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는 누구에게 대답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틀 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도시에 들어오셨고, 성주간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여기 본문에서 성주간 화요일, 즉 지상 사역의 마지막 주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1:23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답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길 보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자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아이가 학교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알아?"라고 묻는 선생님께 "누가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는 격입니다. 자신이 책임자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누가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까?"라고 질문하며 말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는 큰 권위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사람들이 거룩한 축제 주간에 나타나서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누가 당신에게 이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나도 말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 가지 방식과, 복음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거부당한 초대
2. 도전받은 권위
3. 인정받지 못한 권능
4. 받아들여진 복음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 어떤 임금과 같으니
-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인들이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거나 초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거대한 축하 행사를 주최하고 이런 큰 파티를 열 때, 기본적으로 "이 파티가 열릴 예정입니다"라고 적힌 최초의 일반 초대장을 보냈고, 그것은 공식적인 초대장이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하인들이 다시 나가, 첫 번째 일반 초대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실 시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인들을 보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와서 왕의 혼인 잔치를 축하할 시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일반적인 초대에서 그들은 가겠다고 했고, 두 번째, 최종적인 초대에서 그들은 모두 거절합니다. 이것은 왕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입니다. 왕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고 초대된 손님들이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친절하고 너그럽게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는 한 번 더 초대를 합니다. 다른 종들이 나가서 왕을 대신하여 말하고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파티 준비가 모두 끝났고 큰 축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마태복음 22장

5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말대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꼭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다음 실제 티켓을 받고 구겨서 버려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있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선지자들이며 그 선지자들은 "내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이제 올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초대는 "그럼요. 꼭 가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최종적인 초대에서는 단호하게 거절당했고, 왕의 사람들은 초대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다른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끊임없이 원하시는 모습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빠져 있었고, 강하게 반항했으며, 선지자들을 살해했고, 예수님께 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보며 한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37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며 더 가까운 관계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의 식탁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고대 근동에서 그것은 친밀하고 특권이 부여된 자리였습니다. 이 비유는 그분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분의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 큰 초대자리를 마련한 은혜로운 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 않으려는 반항적인 사람들에 대한 왕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며 - 이것이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22:7

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지난 주일에 오스틴 하이츠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결과가 따릅니다. 그건 거절당한 초대였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은혜로운 초대를 거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2. 도전받은 권위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여기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로마의 호의를 얻기를 바라는 정치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들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에 동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팀을 이룬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 아침하며 접근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신다는 듯한 태도로, 그 자체로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덮을 놓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들이 말하는 세금은 로마 시민이 아니면서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성인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인두세입니다. 세금은 이 연간 인두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은화로 냈습니다. 동전의 한 면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한 면에는 그의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는데, 가이사들도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로마 점령군 편을 드는 이스라엘의 반역자처럼 보일 것이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국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답하든, 예수님이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마태복음 22장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1)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가이사의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금 낼 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께 있으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을 더욱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 3. 인정 받지 못한 권능

함께 본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 마태복음 22장

23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7)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 주고

26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바리새인들의 목표가 사람들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의 목표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부활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우리는 그들이 기적, 천사,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었고,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설적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구약성경의 율법에 비추어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Levirate (Leh-vr-it) marriage)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은 자녀가 없이 죽은 남자의 이름과 유산이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그의 동생이 미망인 형수와 결혼하여 그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고, 가문의 혈통과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어떤 답을 해도 좋은 답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부인하거나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어느 쪽으로 답하든 예수님이 걸려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33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번에도 역시 훌륭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을 드러내셨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한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여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존중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역사가들은 그들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권력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고전 그리스 문헌과 고위층 문화가 성경보다 더 매력적이었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시도는 하나님의 권력에 대한 더 강한 거부 반응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 4. 받아들여진 복음

앞부분에 비유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 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지만:

오기로 했던 손님은 모두 안 왔고 새로운 손님들만이 있습니다. 종들은 도시로 연결되는, 통행이 많은 길로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현지인과 외국인,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초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그러므로 나가라"는 예수님 지상명령의 "그러므로 가서"와 똑같습니다. 왕이 하인들에게 "그러므로 가서 너와 비슷한 사람을 네가 편안한, 좋은 동네에 가서 찾아와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가장 낮고 형편없는 곳에서 오는 사람은 초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왕국의 포용성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8

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장이 왔을 때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니다.

"초대받은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합당함과 그렇지 않음은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 크레이그 블룸버그

포용성과 소속감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아서 내가 환영을 받을지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왔든, 초대에 응하면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게 나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도덕한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은 저와 똑같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다.

이 초대는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나 못한 일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문을 여시는 왕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초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판명된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주신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합당한 자들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왕의 초대는 창녀, 세리, 악명 높은 죄인, 성적으로 문란한 자, 부패한 자, 범죄자,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화를 냈다 절망에 빠졌다 하는 평범한 엄마들까지,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그분의 초대가 얼마나 철저히 포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식탁에 나아가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철저히 배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 마태복음 22장 11절

-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것이며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 비유는 나머지 비유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선하건, 악하건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찬 혼인 잔치로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 마태복음 22장

-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혼인 예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거듭남 통해 변화된 실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이 남자는 왜 쫓겨나 영원히 저주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일반 초대장이 보내졌을 때, 사람들은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두 번째 최종적인 초대장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할 시간이 많았지만, 초대를 거부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인들을 큰 네거리 길로 보내, 올 사람들을 모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혼인 예복으로 갈아입고 돌아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 일부는 가난했을 가능성이 크고 초대장을 받았을 당시, 입고 있는 그 한 벌 밖에는 옷이 없고 혼인잔치에 맞는 옷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예복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왕이 문 앞에서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왕국에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일 때, 혼인 잔치 문 앞에 다다를 때, 크고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에 다가갈 때, 여러분은 더러운 누더기를 벗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새롭게 입히실 것입니다.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교환”을 보여줍니다.

## 고린도후서 5:21

-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그분의 의로 교환되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가져가시고, 모든 수치를 가져가시고, 모든 비난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혼인 잔치 문 앞에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옷은 가져가시고 예식에 적합한 깨끗한 흰 옷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순종의 기록, 자신의 선행,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 채 들어오려 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부당하는 네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를 거부하는 것은, 혼인 잔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월링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따릅니다.

왕은 변화되지 않은 채 몰래 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보십니다. 그는 문 앞에서 주어진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묻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고, 잔치에 맞는 예복을 갖출 형편이 안 될 만큼 가난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예복은 선물이었고, 그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대 자체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몰두한 나머지, 초대를 받았음에도 오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지키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분의 권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인 예복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순종, 자신의 선한 행위,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초대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신뢰하며,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삶은 그분이 주시는 새 옷을 입지 않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식탁에 앉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이 잔치의 초대는 철저히 포용적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의 조건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4)